춘천 지하도상가·요선동·새명동·옥천동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이야기

조운동네 좋은소식 2022

조운동네 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한영호입니다.
올해 초 소식지 창간을 축하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조운동네 좋은소식》이 있어 조운동네의 1년이 더욱 빛났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준 편집자들과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주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한영호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다섯 가지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에 해당하며, 찾아가서 머무르고 싶은 원도심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권역인 조운동네(요선동·새명동·옥천동·춘천 지하도상가)는 춘천시의 주요 기능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명동상권과 전통시장, 관공서, 학교, 은행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축물 혹은 기반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은 주로 도시재생과에서 이끌어 가고, 기타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2022년에는 '다시! RE:조운동네', '조운동네 공연배달', '그림같은 조운동네', '상상 아트 홀리데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대관을 통한 전시나 공연도 있었고, 주민 기획 워크숍에서 발굴한 아이디어가 실제 행사로 이어져 실현되었습니다. 상상공원이 완공되어 지하도상가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으며, 강릉 선진지 견학을 계기로 좋은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정기 총회를 준비하며 새롭게 협의체 회원 명단을 정리하고,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위를 정비하기까지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23년에는 지난 기획의 아쉬웠던 점을 보완한 '상상시리즈(청소년 교육·플리마켓·문화공연)'와 더불어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축제 및 상권 연계 소규모 행사,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람들

안녕하세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예은입니다! 2021년 겨울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올봄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조운동네 좋은소식》이 벌써 한 살이에요. 무엇보다 매호 알차고 예쁘게 발행되게끔 고군분투해주신 여름출판사, 허준구 춘천학연구소장님, 조성미 시민기자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하하, 수상소감 같네요. 2022년을 멋지게 마무리해줄 자료집까지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 드립니다!







조운인의 문화공간, 조운웰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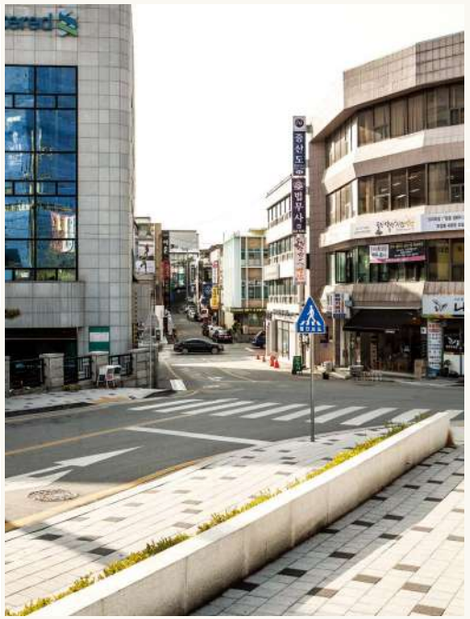
웰컴센터는 40년 된 연극 소극장 건물을 재건축하여 사업권역 주민과 지역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과정의 주요 거점 공간으로 앞으로 요선동에 새로운 문화예술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머 무 르 고 싶 은 **원 도 심**











문 화 가 숨 쉬 는 **조 운 동 네**













part 1

1월에서 3월

* 전시 ‘언어의 분위기’
* 장비 기증식
* 1월 월례회의
* 전시 ‘봄내 기해(己亥)동행전’
* 2월 월례회의
* 전시 ‘삶을 누비다’
* 다시! RE:조운동네
* 3월 월례회의
* 춘천, 생명을 재생하다

1. 2. ~ 1. 14.

전시 ‘언어의 분위기’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세이브어스의
‘언어의 분위기’ 전시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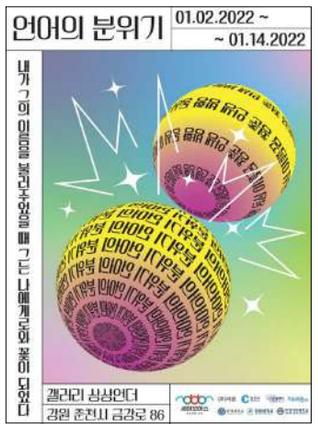
interview

이예은 안녕하세요 팀장님. 제일 먼저 세이브어스를 소개해주신다면?

세이브어스 세이브어스는 주로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2020년에 설립됐구요. 봉사와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이예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세이브어스 노인분들 대상의 치매 노인 기억 개선 미술 치료, 아동 대상의 상상력 증진 미술 수업도 있고,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동화책을 만들기도 했어요. 간단한 예술 체험에서 자신의 작품 만들기까지, 꿈을 지원하는 장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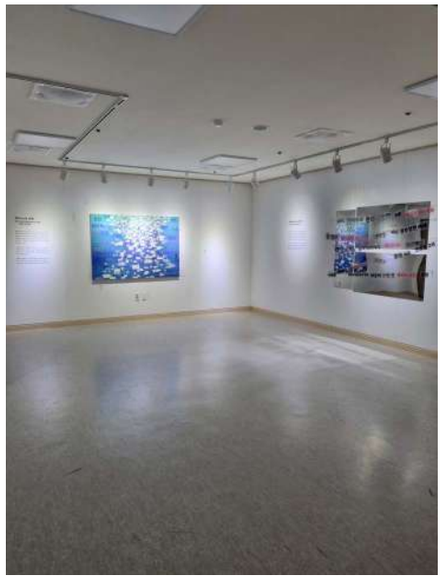
이예은 이번 전시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020년에도 전시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매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인가요?

세이브어스 저희가 원래 출장 수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올해 후평동에 센터를 만들게 되면서 춘천 시민분들을 찾아뵀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타이포 전시로 방향을 잡았고 확정은 아니지만 매년 전시를 열고자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이예은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열린 전시 중에 참여형 프로그램이 있는 건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체험을 포함한 이유가 있나요?

세이브어스 전시 자체를 시민 참여형 인터뷰·봉사·수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을 했기 때





문에 전시장에도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예은 대학생 봉사자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인원수도 궁금하구요.

세이브어스 봉사자분들은 센터 수업이 아닌 출장 수업을 담당하십니다. 출장 수업은 보통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센터, 또 학교에 가기도 해요. 현재는 다섯 분이 있으시고 3월에 한 번 더 모집할 예정이에요.

이예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세이브어스의 2022년 계획은요?

세이브어스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창의미술과 동화 프로그램인데요, 달마다 테마가 바뀌는 형식으로 센터에서 1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1. 12.



장비 기증식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춘천 지하도상가 청소년 밴드연습실에 '뮤즈펙트' 박승훈 대표가 드럼, 건반, 오선보드를 기증하였다.

1. 12.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1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지하도상가 중앙광장 상상공원 조성, 조운웰컴센터 준공, '다시! RE:조운동네',《조운동네 좋은소식》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2. 1. ~ 2. 15.

전시 '봄내 기해(己亥)동행전'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기해동행의 '봄내 기해(己亥)동행전'이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안녕하세요. 작가님. 해당 전시는 1959년 기해년 출생 친구들끼리 모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는지, 또 모임의 이름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상돈 2019년도에 모임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2019년은 돌아온 기해년이었고, 다들 환갑을 맞이했죠. 작가들끼리 '어, 너도 돼지띠? 너도 환갑?' 하다가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된 것 같아요. 모임 이름은 그냥 '기해동행'이라 부릅니다.

이예은 2019년에 첫 '기해동행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모임 자체가 그 해 만들어졌던 거였군요! 그럼 전시는 2019년도부터 매해 진행되었나요?

이상돈 네. 2019년 말에 전시를 한 이후로 2020년,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함께 전시회를 준비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구정맞이 연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항상 '동행'이라는 큰 타이틀은 같고, 부제가 조금씩 바뀌는 형식이에요.

이예은 현재 기해동행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상돈 18명이에요. 좋은 친구들입니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서로의 분야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예은 춘천에만 이렇게 많은 59년생 동갑내기 예술가분들이 있는 게 참 신기해요. 혹시 전시를 진행하게 된 계기도 있을까요?

이상돈 아무래도 작가들이 모인 것이다 보니까 '춘천에 이렇게 많은 작가가 있구나.'를 알리고 싶었어요.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예은 정기적으로 모이시기도 하나요?

이상돈 3개월에 한 번 모이자고 했었는데 시국이 이래서 단체 채팅방에서만 만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풀리면 여행도 가고, 전시 퍼포먼스도 하자는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이예은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앞으로의 모임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이상돈 기해동행은 저에게도 의미 있는 모임이에요. 이렇게 예술인 모임은 다른 지역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유일무이해요. 이건 여담인데 저희 건배사는 "돼지 꿀꿀"이에요. (웃음) 일단 얼른 시국이 좋아져서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고, 10주년, 그니까 일흔 살이 되는 때 조금 크게 무언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2. 16.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2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운플레잉 시즌2 '다시! RE:조운동네', 상상언더그라운드 예술체험 교육,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온라인 마케팅 교육, 상상공원 조성사업 착수, 조운웰컴센터 간판 설치, 《조운동네 좋은소식》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전시 '삶을 누비다'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박진옥 작가 개인전
'삶을 누비다'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안녕하세요, 작가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작품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박진옥 전시회 진행과 같은 시작을 말한다면 2015년이고요, 2009년에 한복매장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했어요. 주 종목은 한복이고 천연염색, 손보자기 포장(예단 포장), 결혼식 맞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은 개인 사업과 작품 활동을 계속 병행해오신 건가요?

박진옥 네, 그렇죠. 제가 별도로 개설한 '고전진의문화학교'라는 자격증 취미반 수업도 있어요. 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 체험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자기 컨설팅, 퇴직하고 제3의 인생을 찾는 5060을 위한 강의, 시니어 인지 향상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예은 정말 바쁘게 살고 계시네요, 전시는 꾸준히 해오신 건가요? 갤러리 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박진옥 전시는 거의 매년 하고 있어요. 주로 서울에서 진행했었고, 춘천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하도상가를 지나다 우연히 갤러리를 보게 돼서 그길로 상담했어요.

이예은 혼자 작업하시나요? 다른 동료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박진옥 한국전통규방문화연합회 강원지부를 제가 설립했어요. 아직 적은 인원이긴 하



지만 협회 회원님들이 계세요. 올해 연말에 협회 단체전을 진행할 예정이고, 보완할 점을 찾고자 제가 먼저 신청해서 일종의 시험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웃음)

이예은 이번 전시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박진옥 한복을 전공하면서 알게 된 건 한복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장식한다는 거였어요. 태어났을 때 입는 배냇저고리부터 결혼식, 그리고 수의까지. 중요한 순간에는 한복이 있어요. 한복은 종일 작업해도 한 줄밖에 안 돼요. 정말 한 땀 한 땀 완성해나가는 거죠. 삶이 온전히 담겨 있어요.

이예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박진옥 저는 뭐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요. 제가 대학 때 학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제가 대기업 계열 패션 회사에 갈 걸로 추측하고 바랐지만 저는 한복을 선택했어요. 교수님들도 참 많이 반대했었죠. (웃음)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쪽 업계를 꿈꾸는 친구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들,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분들이 또다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장르를 넘어 교류하며 소통하는 예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2. 19. ~ 3. 5.

다시! RE:조운동네

조운플레잉 시즌2 '다시! RE:조운동네'가 진행되었다. 2월 19일 춘천 지하도상가 편, 2월 26일 요선동 편, 3월 5일 새명동 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운 상인, 조운 놀이터, 조운우리, 조운손님, 주제 퍼포먼스' 등 새봄맞이 행복 충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상인이 주체적 참여자로서 공예, 음악, 유튜버, 레저 등 사업 권역 고유 콘텐츠를 통해 지역 시민과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이외에도 SNS를 통한 지정상가 상품권 이벤트 및 지역 온라인 인플루언서들과 홍보 활동을 연계하였다.





2. 19. 춘천 지하도상가 13:00~18:30
2. 26. 요선동 13:00~18:30
3. 5. 새명동 13:00~18:30

3. 16.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3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공실 모집 예정, 주민제안사업 '조운동네는 날마다 축제', '춘천시 도시재생 한마당', 마을활동가 모집, 요선동 운영위원 구성, 《조운동네 좋은소식》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3. 25. ~ 3. 27.



춘천, 생명을 재생하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조운소양·근화소양·교동소양·약사명동 현장지원센터, 춘천시 지원센터)가 연합하여 진행한 '춘천시 도시재생 한마당'. 권역별 주민들이 만든 공연과 체험, 홍보 부스 및 지역 전문공연예술가 무대로 꾸며졌다.





지하도상가 사람의 나이듦에 대한 예찬

인생을 맛있게 익히는 사람들

든든한 한 끼 먹으러 〈쥐눈이콩나물밥〉 집에 갑니다~

쥐눈이콩나물밥 1호점
지하도상가 도청로 다-82, 83호 033-242-9777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 시간 전후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흔히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한다. 밥이 우리 삶의 원천과 같기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다. 여기 지하도상가 도청로에는 정성 가득한 밥 한 끼로 우리에게 든든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곳이 있다. 모두 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드는 쥐눈이콩나물밥, 하양두부, 쥐눈이콩나물라면 이 세 메뉴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어르신은 500원 할인까지 더하니 이보다 더 좋은 밥 한 끼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이 밥을 짓는다. 하얀 모자를 쓴 깔끔한 모습만 보아도 정갈하다. 손님이 건네는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에 힘이 불끈 솟는다는 어르신 직원들은 짧은 휴식 시간에는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수다 떨기 바쁘다. 자식 키우며 고된 인생을 묵묵히 살아내고 이제야 무엇이든 맘껏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수다가 얼마나 달까. 지금은 즐겁게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단다. 이 마음을 정성으로 되돌려 밥도 맛있게 만든다. 정도 고프고 배도 고픈 사람은 〈쥐눈이콩나물밥〉 집에 가보자. 콩나물밥심에 힘을 얻었다고, 콩나물밥이 보약이라고 말할 것이다.





단골손님 덕에 문턱이 닳는다는 〈추억의 옛 다방〉 사람들

추억의 옛 다방
지하도상가 가-58, 59호

추억이 담긴 옛 다방의 문을 열면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분들의 모습이 먼저 눈길을 끈다. 이곳 직원은 모두 춘천시니어클럽의 회원들로 대부분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나이를 먹는지도 모르다 어느 날 머리는 하얗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모습을 발견하고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며 용기를 내 집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곳에는 키오스크(무인단말기)는 당연히 없고,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지도 않는다. 손님은 그냥 자리를 잡고 앉아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면 된다. 피곤할 때 당기는 다방커피부터 달걀노른자, 대추, 잣 같은 고명을 잔뜩 올린 쌍화차까지 준비되어 있다. 한 번 이 다방에 발을 들인 손님은 백이면 백 단골이 된다. 커피는 물론 편안한 인생 친구가 되어주는 직원들 덕분이다. 그렇다고 어르신들만 찾는 곳은 아니다. 지하도상가를 오가는 젊은이나 아기 엄마들도 차 한잔 마시고 간다.

〈추억의 옛 다방〉 사람들은 보통 집안일을 하고, 출가한 아이들 만나고,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평범한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출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어르신들은 일하는 것이 쉬는 것보다 즐겁다고 하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다. 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하다면 지하도상가 〈추억의 옛 다방〉으로 슬슬 마실을 나오면 좋겠다.

인터뷰 및 글_ **조성미**(시민기자)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2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예술 그리고 맛깔의 공간, 요선동

신선 같은 길손이 찾아들던 요선동

요선동은 봉의산 관청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서민을 봉황이 품어주던 첫 동네이다. 요선동이라는 이름은 춘천 관아에 딸린 건물인 요선당(邀仙堂)에서 가져왔다. '요선(邀仙)'이란 신선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춘천을 찾아온 손님을 신선에 빗대어 이름 붙였다.

외지에서 관청을 찾아온 손님을 맞아 재워주는 건물을 객사(客舍)라고 한다. 요선당은 1573년 당시 춘천도호부 부사였던 성의국이 14칸 규모로 지은 객사로 연회 공간을 겸하였다. 이후 기록에 따르면 두 번이나 불에 타서 재건되었다가 춘천이궁이 건립되며 그 자리를 내주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요선이라는 마을 이름은 건재하였고, 1919년 3·1만세 운동 때에는 요선동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항일투쟁의 기개가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요선 장터는 지금의 요선시장과 거의 같은 자리다. 비슷한 시기 중앙시장에서는 주로 농산물을 거래했다면, 요선시장에서는 생활용품과 일부 농산물을 거래했다. 춘천의 첫 개신교 교회인 중앙교회가 요선시장 근처에 자리 잡았다는 점도 새롭다. 춘천의 개신교 출발점이 요선동인 셈이다.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6·25)을 겪으면서 요선동 주위로 강원도청,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강원도교육청 등이 재건되자 요선동 골목에는 하숙집과 여관이 빽빽하게 모여 들었다. 여기에 캠프페이지가 들어서며 미제물품이 거래되자 1956년부터 상인회 중심의 상설 시장으로 변모해 나갔다. 1960~1970년대에는 춘천에 춘천댐, 의암댐, 소양댐이 연이어 건설되며 건설노동자가 요선시장 주변의 유흥음식점으로 밀려들어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게다가 양화점, 양품점, 양복점, 표구사가 들어서며 그야말로 한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전성시대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상권이 1990년대를 맞아 서서히 명동상권으로 옮겨가며 요선동 상권





은 조금씩 쇠퇴하였고, 낡고 좁은 요선시장은 개발 제한뿐 아니라 주택 상가로 이루어져 전통시장 재생을 위한 정부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결국 요선동 주택가 아래 요선시장과 요선동 먹자골목은 2000년대 들어 상권을 부심권에 내주고 말았다.

춘천문화예술 공간, 요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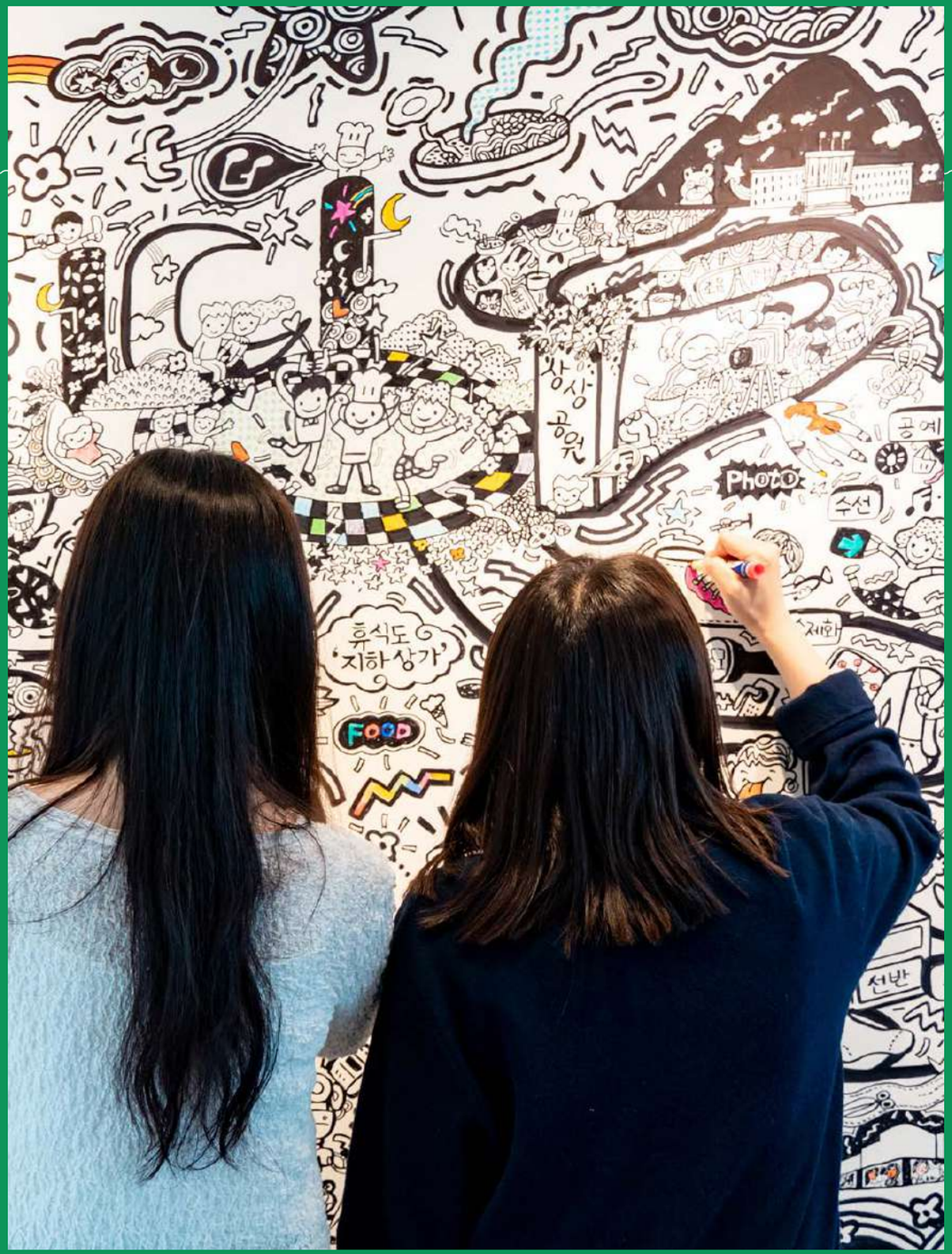
요선동의 멋과 맛을 기억하고 찾아주는 분들은 여전히 많다. 요선동은 근현대 춘천의 멋을 이어가는 전통 있고 유서 깊은 문화공간이다. 요선동에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숨결이 곳곳에 녹아 있다. 1972년 춘천시립문화관(개관 당시는 강원도립문화관)이 3층 규모로 도청 앞에 건립되면서 요선동은 춘천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종합문화공간인 시립문화관이 건립되자 전문화랑 '선(仙)갤러리'가 들어왔으며 화방, 고서화 화랑을 겸하는 표구사, 필방, 극단 '굴레', 골동품가게, 건축사, 문화기획사무소, 전통 찻집과 카페, 인쇄소 등이 요선동을 빼곡하게 채워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최고의 문화예술공간으로 떠올랐다.

요선동 문화에서 표구사가 들어선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요선동에 가장 먼저 들어온 표구사가 '한일표구사'다. 한일표구사는 한국화가였던 이판석 화가가 196년 문을 열었다. 이판석 화가는 어깨너머로 배운 표구 기술을 바탕으로 춘천 최초의 표구사를 요선동에 낸 것이다. 이후 1967년 창립한 묵촌회(박건서 화백)가 1971년 이전해 왔고, 1972년 '강원화방(이환종)'이 들어왔다. 여기에 1974년 강원대학교에 미술교육과가 만들어지며 요선동은 그야말로 문화 르네상스를 맞이하였다. 이후 화방, 표구사, 입시학원, 미술교습소가 들어섰다. 지금도 현대표구사와 예원표구사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요선동 문화예술시설은 상권 변화에 따라 지금은 음식점과 유흥업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진규 마임이나 작은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행사가 진행되어 향후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요선동은 춘천의 역사, 문화예술, 맛깔이라는 주제에서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는 춘천에서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떠올리며 이곳을 걷는다면 또 다른 낭만과 추억을 만날 수 있다. 나그네로 온 우리네 인생에서 신선처럼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요선동 아닐까.

글_ **허준구**(춘천학연구소장)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2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part 2

4월에서 6월

* 전시 '꽃밭에 뿌리는 꿈씨'
* 4월 월례회의
* 공실 모집
* 전시 '천으로 물들이면 꿈꾸는 염색이야기'
* 《조운동네 좋은소식》 창간호 발행
* 5월 월례회의
* 상상공원 완공
* 전시 '강촌에 살고 있네, 강촌의 자연'
* 조운동네 공연배달
* 그림같은 조운동네
* 강릉 선진지 견학
* 6월 월례회의
* 《조운동네 좋은소식》2호 발행

4. 2. ~ 4. 15.



전시 '꽃밭에 뿌리는 꿈씨'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하라미술학원 학생들의 단체전 '꽃밭에 뿌리는 꿈씨'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미술학원 단체전은 처음이에요. 매회 진행해오시던 행사인가요?

신지윤 전시는 '키디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해 '자아표현전', '정물들의 이야기',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우리 동네이야기' 등 춘천미술관과 여성문화회관에서 꾸준히 해왔어요.

이예은 전시는 계속 해오셨던 거군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가르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신지윤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한 아이들 미술과외를 계기로 지금까지 30년간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고, 제가 전공한 그림과 아이들의 동심을 함께 공부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예은 갤러리 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신지윤 아이들의 전시회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에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전시 공간을 대여하는 거였어요. 대관료도 녹록지 않고, 대관 일정과 시간의 제약에 불편함이 많았어요. 지인들의 소개도 있었고 또 우연히 지하도상가를 방문했다 들러본 전시가 너무 편안하고 좋아 보여서 문의하게 되었어요. 이번 상상언더에서의 전시로 아이들도 조금 더 길고 풍요로운 전시를 갖게 되었고,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줄어서 개인적으로도 크게 만족하고 있어요.

이예은 '꽃밭에 뿌려진 꿈씨'를 약 3개월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 전시를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신지윤 3년째 맞이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이 어수선해지고 방역과 거리두기로 소중한 시간이 흘러버리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팠어요. 특히, 아이들이 그 시기에 경험해야 할 소중한 체험을 잃고 마스크 속에 모두 감추어 버리는 것 같아서 저라도 아이들의 마음과 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었어요.

이 혼돈의 시기에도 아이들에게 학업을 강요하고 뒤쳐지는 부분을 질책하는데, 이번 전시를 하는 동안이라도 이곳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소망, 미래에 눈높이를 맞춘 마음 읽어주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예은 1부 '햇살'과 2부 '바람'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

신지윤 전시 주제인 꽃밭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고 가정이자 주변 환경이에요. 그곳에 소중한 미래의 꿈과 목표를 담은 씨앗이 바로 꿈씨예요. 꽃밭에 뿌리는 꿈씨는 혼자 자랄 수가 없어요. 햇살과 바람이라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응원과 관심을 통해 건강하게 자랄 테니까요.

전시에 사용된 단어들은 그런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전시의 콘셉트를 잡으면서 꿈이 가득한 갤러리 상상언더의 이



름과 잘 어울려서 더 기뻤던 기억이 나네요(웃음) 아! 특별히 아이들이 자신에게 던지는 60가지 상상질문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적어본 한 줄 그림일기를 전시 관람과 함께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기분 좋은 동심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예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신지윤 지금처럼 아이들과 미술이란 고운 인연으로 맺어진 끈을 놓지 않고 모지스 할머니 화가처럼 늙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올해부터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제 그림도 작업해서 함께 전시할 목표도 세웠어요. 전시회라는 단어 하나가 갖는 힘은 아주 크죠!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존감, 성취감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내가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정서적 애착이 커지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좀 더 커지리라 희망합니다. 마스크 속에 갇혀 갑갑했던 우리들의 이야기와 꿈을 마음껏 캔버스 위에 풀어놓을 기회를 조금 더 자주 만들어 주어야겠어요.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4. 8. ~ 5. 13.

공실 모집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잔여 공실에 대한 입주단체(인)를 모집하였다.

4. 13.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4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운플레잉 시즌2 '조운동네 공연배달',《조운동네 좋은소식》창간호 발행, 주민제안사업, '그림같은 조운동네', 지하 도상가 공실 모집, 주민협의체 임시 총회,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전시
‘천으로 물들이며 꿈꾸는 염색이야기’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봄시내 천연염색회의 단체전
‘천으로 물들이며 꿈꾸는 염색이야기’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안녕하세요. 봄시내는 언제, 어떻게 구성된 단체인가요?

정우연 평생학습관 허미순 선생님께 수업을 들은 게 계기가 되어 친해지면서 만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바느질로 시작했었는데 천연염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이 봄내잖아요, 도시 이름을 따서 봄시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예은 현재 회원 수는 몇 분인가요?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우연 회원 수는 10~15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작업해요. 토요일 오전 10~12시쯤. 작업을 하고 나면 같이 밥 먹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예은 염색 진행 과정이 궁금한데요. 자택에서도 작업이 가능한가요?

허미순 회장님 댁이 단독주택이라 차고나 마당에서 작업을 해요.

정우연 염료 끓이고, 세척하고, 매염하고, 세척하고, 또 염색하고 반복의 연속이에요. 보통 한 작품당 3시간, 빠르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이예은 첫 전시이신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오셨나요?

정우연 염색회가 만들어진 건 5년 전이고 전시는 3년 전에 시작했어요. 춘천시에서 동호회 보조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신청했는데 합격해서 전시하게 됐어요. 매력을 느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남에게 보여주는 재미가 있더라구요.

허미순 일종의 인생 나눔 활동이에요. 서로 인생을 공유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예은 갤러리 상상언더는 어떻게 알고 신청



하게 되셨나요?

허미순 '기해동행전'에 참여하며 알게 됐어요. 제 작업실도 바로 이 위에 있기도 하고요.

이예은 전시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허미순 아마 총 200점 정도 될 거예요. 1년 내내 만든 작품들이에요.

이예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허미순 우리가 다 노인네들이거든. 다 60대 이상이에요. '꿈꾸는 할멈들의 반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우연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만들면서 기쁨을 느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요. 내 작품을 소중한 지인들이 착용하는 걸 보면 참 뿌듯해요.

이예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허미순 생활동아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천으로 즐기자! (웃음)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4. 15.

《조운동네 좋은소식》 창간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5. 18.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5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주민공모사업, 주민주도 문화예술기획 프로그램, '조운동네 공연배달', '그림같은 조운동네', 선진지 견학, 주민협의체 임시 총회, '도시재생대학',《조운동네 좋은소식》, 공실 모집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5. 31.

상상공원 완공

춘천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이 '상상공원'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완벽 변신하여 돌아왔다. 분수대가 사라지고 초승달 벤치·토끼 조명·잔디 매트·목재 데크·관엽식물 등 자연적 경관을 연출하였다.







6. 1. ~ 6. 30.

전시
'강촌에 살고 있네, 강촌의 자연'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남산도서관의 강촌이야기책 원화전 '강촌에 살고 있네, 강촌의 자연'이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안녕하세요, 계장님. 도서관에서 주최한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전시를 진행하게 되셨나요? 혹시 꾸준히 해오시던 행사일까요?

송은혜 《강촌이야기책》은 2021년 도서관에서 진행한 '강촌이야기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책이에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한 참여형 그림책 발간 기회를 제공하고자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참가 대상 모집부터 그림책 발간까지 꼬박 1년에 걸쳐 만들어진 책이기에 좀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고 싶어 전시를 계획하게 됐어요.

이예은 갤러리 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송은혜 책을 홍보하기 위해 저희 남산도서관 2층 북카페를 시작으로 더 많은 분이 볼 수 있는 춘천의 전시 공간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춘천 지하도상가 갤러리를 보고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은 '강촌이야기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몇 개월간 진행됐나요? 참여자들의 연령층이나 후기도 궁금하고요!

송은혜 2021년 1월부터 시작해 '그림책 함께 읽기, 글쓰기, 그리기 시간' 등 총 38회에 걸쳐 8월까지 진행됐어요. 참여자 대부분은 60세 이상 남산면에서 자란 지역 주민으로 누구보다 남산면을 사랑하고 강촌의 역사를 잘 알기에 강촌 지역을 소재로 한 지역 주민의 생활이 담긴 소중한 글과 그림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진행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웃음)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이 힘들 때면 강사 선생님과의 일대일 가정방문이 이루어졌고,

신청자들의 어렸을 적 강촌의 좋고 아름다웠던 옛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이야기했답니다. 그것을 글과 그림으로 잘 담아내기 위해 강좌에 참여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지도 강사님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예은 해당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송은혜 《강촌이야기책》을 통해 나만의 추억의 장소인 강촌을 한 번 떠올려보고 그 추억에 이끌려 강촌에 많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강촌 오시는 길에 남산도서관에도 들러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편안하게 읽다 가셨으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이예은 마지막으로 계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송은혜 6월 갤러리 상상언더 전시를 끝내면 강촌이야기책 수록 작품은 마지막 종착역인 강촌상상역(구 강촌역사)으로 가게 되는데요, 시민들이 작품을 접하고 아름다운 강촌의 자연을 떠올려 강촌을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6. 2. ~ 6. 29.

조운동네 공연배달

6월 한 달간 '조운동네 공연배달'이 진행되었다. 기타, 마임 및 마술, 체험, 국악, 클래식, 이동형 공연 등으로 구성하였다. 행사명을 매달 달리 짓는 것이 아닌 상권과 관련된 단어 "음식 배달"에서 착안하여 공통 행사명을 2022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6.2. 요선동 19:00~20:00
6.4. 춘천시청 로비 13:00~18:00
6.8. 새명동 12:20~12:50
6.18. 상상공원(춘천 지하도상가) 13:00~18:00
6.27. 새명동 12:20~12:50
6.29.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2:20~12:50



6. 8. ~ 7. 8.

그림같은 조운동네

조운웰컴센터 집들이 '그림같은 조운동네'가 진행되었다. 조운웰컴센터는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거점과 시민들을 위한 문턱 낮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2022년 3월 개관하였다. '그림같은 조운동네'는 조운웰컴센터의 문을 여는 기획 전시로 유환석, 이병도, 최지관 작가와 함께했다. 조운동네를 작가들의 시선으로 담는 의미 있는 아카이브 전시이며, 어반스케치와 컬러링 체험 또한 운영되었다.





10:00~18:00 조운웰컴센터



6. 9.



강릉 선진지 견학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주민분들과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였다. 강릉 옥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중앙동 도지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방문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앵커시설 '구슬샘 문화창고'와 '중앙동 살맛터'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옥거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살맛나는중앙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 추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6. 15.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6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조운동네 공연배달&그림같은 조운동네', 조운동네 주민 공동체 페스타, 상상언더 선정단체 입주, 주민협의체 임시 총회, 주민공모사업 재공고, 《조운동네 좋은소식》, 청소년 문화교육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6. 15.



《조운동네 좋은소식》2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2호를 발행하였다.







맛있게 뜨겁고, 말끔하게 뜨거운

1, 2층 사장님의 특별한 동행

세탁 외길 인생!
우리 삶의 주름을 쫙 펴주세요!

조양세탁소
시청길12번길17-5, 033-253-3911

2층 '조양세탁소'는 세탁소의 원조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 만큼 오래되었다. 열여덟 살에 고향을 떠나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시작한 세탁일을 일흔 살이 넘어서까지 천직으로 여기며 살게 될 거라고 젊은 시절 김승복 씨는 생각이나 했을까.

예전에는 아침에 문을 열면 밤 10시, 12시까지 일했다. 주변이 상가, 은행, 회사가 늘어선 번화가라 직장여성이 세탁소를 많이 찾았다. 다른 세탁소도 주변에 있었지만 IMF를 버티지 못했고, 지금은 조양세탁소만 남았다.

50여 년을 한 건물에서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있다. 아내는 지금도 가게와 집을 오가며 삼시 세끼를 맛깔나게 챙겨준다. 귀찮아하지 않고 정성으로 차려주는 아내가 고마울 따름이다. 곡선 같은 남편과 직선 같은 아내가 만나 딸 둘을 잘 키웠고 이제 아내는 수영장으로, 남편은 테니스장으로 각자 취미생활을 하고 때론 같이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긴다.

열여덟 살에 횡성을 떠나 조양동(지금의 조운동)에서 세탁일로 50년을 보낸 김승복 씨. 머리가 희끗해진 주인은 어린 두 딸과 여름날 강가에서 함께 웃고 놀던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니 삶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들려준다. 세월이 흐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인생살이의 진리…. 세월이 가면 이런 인생 해법을 나도 깨닫게 될까?



또순이의 쉼표 없는 24시!
이제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소양강다슬기
시청길12번길17-5, 033-242-9533

새명동 골목에 한 번 맛보면 시원함에 바로 매료되는 '소양강다슬기'가 있다. 술이라도 한잔 걸친 다음 날은 더 반가울 이곳에는 18년째 매일 탕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따끈따끈하게 계란말이를 후딱 만들어 정성껏 차려내는 철의 여인이 있다. 홀로 4남매를 키우고 식당을 유명 맛집으로 발전시킨 주인장은 이웃이 지어준 별명 '또순이'와 똑맞아 떨어진다.

또순이 조윤숙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고향을 떠나 아무 연고 없는 춘천에 터를 잡고 소양강다슬기를 열었다. 전라도 손맛이 담긴 엄마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란 덕분일까? 손님들이 맛있다며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오고, 또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오고…. 그렇게 식당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 곁에는 4남매가 있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슬기를 까고 탕을 끓이고 김치를 담갔다. 아이들 학원 보낼 여유가 없어 직접 공부를 해서 가르쳤다. 엄마는 가계부를 꼼꼼히 썼고 아이들은 용돈기입장과 일기를 꼬박꼬박 썼다. 그래서인지 4남매 모두 경제관념이 철저하다. 너무 빨리 철난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가고 싶은 대학보다는 장학금이나 기숙사 등 여건이 나은 대학을스스로 찾아간 아이들은 외국인 회사 지점장, 간호사, 공무원이 되었고 듬직한 큰아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젊은 감각으로 해장국집을 키워가고 있다.

그녀의 하루는 매일 새벽 4시에 시작된다. 더 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일어나 새벽같이 가게로 가서 장사 준비를 끝내고 잠시 새벽기도를 다녀와 7시에 식당 문을 연다. 음식 재료인 다슬기의 특성상 계절, 날씨에 영향을 받으므로 재료 공급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홍천강 상류 다슬기 채취권을 사서 도매업까지 하게 되었다. 그곳 다슬기가 색깔도 파랗고 단맛도 더 좋다. 조윤숙 씨는 이제야 여유라는 단어를 슬쩍 떠올려본다.

인터뷰 및 글_ **조성미**(시민기자)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3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문화복합공간 지하도상가에서 무더위를 날리세요!

중앙로 지하도 건설에 대한 첫 논의는 1989년 춘천시번영회에서 행인의 안전과 교통 체증을 개선하고자 지하보도와 지하주차장 건설을 춘천시에 건의한 데서 비롯했다. 이어 1990년 춘천상공회의소에서 춘천 지하보도 및 상가 건설을 춘천시에 건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춘천시가 지하도상가 조성 계획을 세웠고, 1991년 12월 춘천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조성 계획을 의결하였다. 1993년 춘천시에서 시행사를 모집하고 1994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1999년 9월 분양까지 마침으로써 명실상부한 춘천 지하도상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지하 2층으로 이루어진 춘천 지하도상가는 도청로, 중앙로, 남부로 세 방향으로 보도(步道)가 길게 뻗어 있으며, 보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상가가 늘어서 있다. 보도의 전체 길이는 1,013m이고, 보도 양쪽으로 점포 352개가 들어서 있으며,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이 352면 조성되어 있다. 지하 1층의 지하도상가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패션, 젊음, 사람, 문화의 거리, 만남의 광장 등 5개 주제로 구역을 설정하였다.

시민의 휴식처 젊은이의 문화복합공간 '상상공원'

중앙로는 시내버스 노선이 집중되어 춘천의 사방에서 접근하기 쉽고 지하도상가는 출입문이 곳곳에 있어 내부로 드나들기도 수월하다. 지하도상가 휴식에서 중심은 만남의 광장이다. 만남의 광장 중앙에 있던 분수대는 20년 이상 시민에게 휴식처로 사랑받았다. 지금 만남의 광장은 리모델링을 해서 분수대를 없애고 초록색 카펫이 넓게 깔린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가족 단위는 물론 젊은 층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곳에 LED 조형물과 벽화가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포토존이 되었고, 광장에는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관엽식물로 조경 공사를 함으로써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의 대표 휴식처 '상상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상상공원'에는 젊은이를 유혹하는 편의시설도 설치해 휴식처의 품격을 높였다. 의자에는 스마트폰 충전기와 자동가습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모니터를 놓아 시내버스 노선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휴게 공간에는 '공유책방'이 개설되어 시민들이 기부한 책도 빌려볼 수 있다.

젊은이를 위한 대표적 문화복합공간

모든 세대를 품을 수 있는 휴식처로 자리 잡은 지하도상가에 문화를 입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하도상가는 명실상부한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상상공원에서 합창단, 서커스 등의 공연이 열렸으며, 청소년 참여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미디어 교육용 컴퓨터 장비와 촬영 영상을 편집하여 SNS에 게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면서 문화복합공간으로 변신 또한 진행되고 있다. 지하도상가에는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약300개 점포가 문을 열고 있다. 유행을 앞서는 의류와 액세서리, 스마트폰 판매점포가 늘어서 있으니 젊은이들이 패션과 유행을 이끌어나갈 일번지라 해도 어디 하나 밀릴 것이 없다.

지하도상가의 미래

지하도상가는 과감한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사계절 언제나 시민의 휴식처로 애용되며 세대를 아우르고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언제든 가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이자 다양한 공연이 활기차게 펼쳐지는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변신해 전 세대가 공감하고 사랑하는 시민의 공간이 되었으니, 모쪼록 우리 시민께서는 꼭 다녀가시길 강력히 추천한다.

글_ **허준구**(춘천학연구소장)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3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part 3

7월에서 9월

* 7월 월례회의
* 전시 ‘회귀’
* 오늘 점 찍으셨나요?
* 전시 ‘BE MERRY!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어’
* 상상 아트 홀리데이
* 조운동네 공연배달
* 《조운동네 좋은소식》3호 발행
* 블루요선
* 반짝! 놀이터
* 전시 ‘희로애락’
* 전시 ‘시선이 머물다’

전시 '회귀'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길창인 작가의 개인전 '회귀'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번이 첫 번째 전시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전시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길창인 전시 주제와 맥락이 비슷해요. 저는 사진을 보여주는 직업을 가졌는데 사진은 예술이 아닌 기술로만 여겨져요. 고민을 많이 했고, 전시도 많이 다녔어요. 사진이라는 기술 자체는 예술의 영역으로 안 느껴졌거든요. '사진이 과연 예술이 될 수 있을까?' '피사체의 본질을 담으면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 물통은 지금 현상 그대로의 물통이지만 이게 여기 있기 전까지 사람들의 상상이나 생각에서 시작해 그것의 결과물로서 물통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찍으면 복제지만, 본질에 대한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예술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물의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자기유사성의 개념을 프랙탈이라고 하잖아요. 피사체를 찍고 그것의 일부분을 반복해 패턴화된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술이란 무엇일까? 사진은 예술인가?'에 대한 저만의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예은 갤러리 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길창인 육림고개 쪽에 제 스튜디오가 있어요. 가까워서 지나다니다 보기도 했고요. 전시를 준비하면서 대관할 곳을 찾아보다가 갤러리 상상언더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신청하게 됐어요.

이예은 처음 작가님 작품을 보았을 때 새롭고 신기했어요. 아까도 살짝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작업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길창인 작업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사진을 찍고, 그 일부를 가지고 와서 반복시키는 건데 사진을 찍을 때부터 결과를 상상해요. '여기를 반복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겠구나!' 하죠. 실제로는 우연적인 요소 반, 의도적인 요소 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예은 3부작으로 구성된 이유가 궁금해요. '회귀, 환원, 환상' 제목에 담긴 의미도요.

길창인 처음에는 이것만 준비했는데 첫 번째





전시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나 자신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낯설어 할 거라 생각해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회귀는 '본질로 돌아가야지 사진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고, 환원은 본질로 돌아간 것을 다시 현상으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환상은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최종 예술 형태예요. 그땐 평면보다는 움직이는 미디어 전시로 하는 게 목표고요.

이예은 그렇다면 작가님은 사진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길창인 제가 느끼기엔 솔직히 그래요. 물론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찍으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그대로의 복제가 과연 예술일까?' 저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저만의 결론을 내게 돼서 마음이 뭔가 후련해요.

이예은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요?

길창인 일단 전시 3부작을 잘 마치는 것. 2부, 3부는 내년을 계획하고 있어요. 춘천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그리고 내년 초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춘천 청년 예술가들을 한 10명 정도 모아 함께 전시를 꾸려보는 게 목표예요.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7. 13.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7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청소년 문화교육 '상상 아트 홀리데이', 조운동네 주민 공동체 페스타, 주민공모사업 재공고, 조운웰컴센터 마을극장 대관 준비, '조운동네 공연배달', 《조운동네 좋은소식》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7. 26.

오늘 점 찍으셨나요?

2021년 말 상인 기획 워크숍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가 실현되었다. 춘천 지하도상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점점 여행'으로 지하도상가 단합의 첫 점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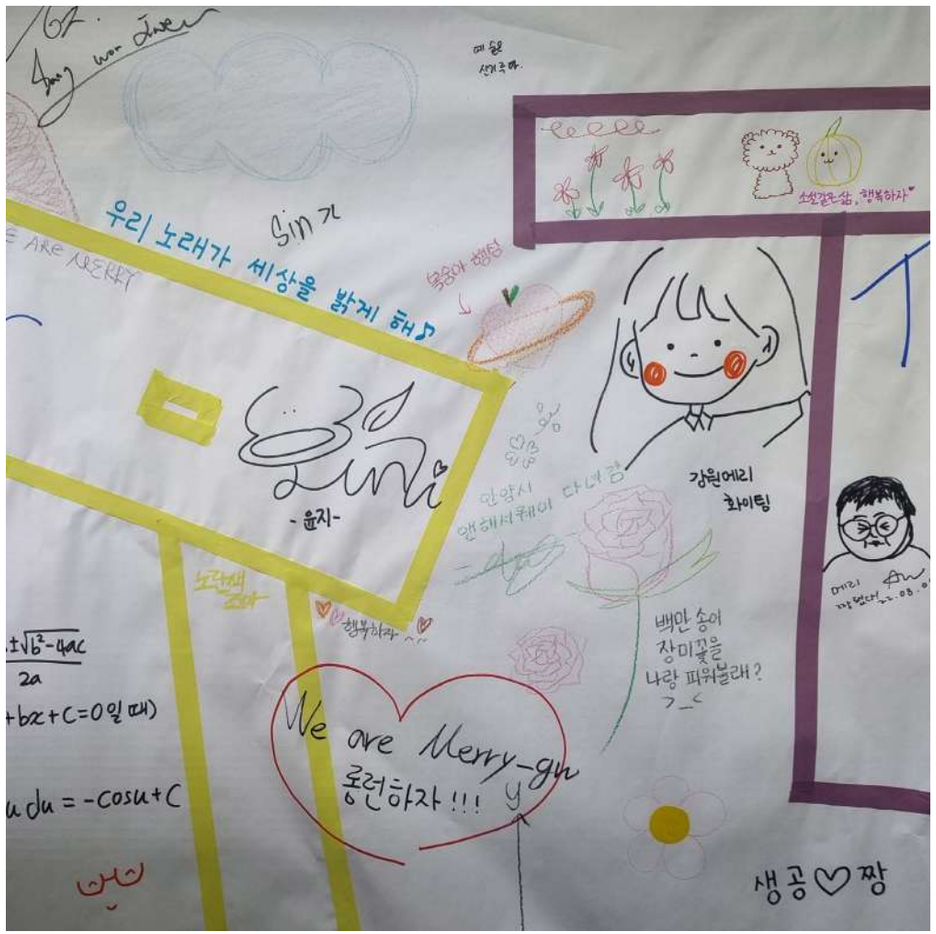


6.~7. 주민기획단 회의, 주민 소모임
7. 26. 11:00~21:30 점점여행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서면 일대

전시
‘BE MERRY!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어’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메리 강원지부의 ‘BE MERRY!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어’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안녕하세요 팀장님. 제일 먼저 ‘메리’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세욱 사단법인 문화예술봉사단 메리는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전 연령층 봉사자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 속 문화예술의 선순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진 메리는 그 이름에 담긴 뜻처럼 지역민들의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위해 문화예술 봉사, 오케스트라 합창 공연 그리고 시민 문화기획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메리는 서울, 대전, 강원 총 3개의 지부가 있으며 이번 전시는 강원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예은 이번이 첫 전시인가요, 아니면 매번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인가요? 또 전시를 열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정세욱 본격적인 대관을 통해 전시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 강원지부에서 준비한 전시는 그동안 메리가 추구하던 ‘문화민주주의’를 담았어요. 누구나 예술을 접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이념입니다. 예술의 장벽을 넘어선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감정, 생각을 시민들에게 더욱 널리 퍼트리고 누구나 예술의 주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예은 갤러리 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정세욱 아시다시피 전시 주제가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어!’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공간이 아닌 메리라는 단체와 이번 전시가 지니고 있는 전체적인 뜻이 맞는 곳에서 진행하고 싶었어요. 갤러리 상상언더는 지하도상가에 위치해 춘천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공간인 것이 좋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은 참여형 위주의 전시인데,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거나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세욱 저희 전시의 전체적인 플롯은 3막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를 나타내기 위한 공간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전시장에 무심코 관람객이 들어왔을 때 ‘챕터1 - 메리, 예술과 만나다!’를 통해 자연스럽게 메리라는 단체에 관심을 가지게 한 후, ‘챕터2 - 메리, 시민과 함께하다!’에서 메리가 시민들을 예술가로 만들어주었다는 걸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마지막 ‘챕터3 -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어!’가 바로 체험형 전시였죠. 전시장의 세 가지 요소가 부드럽고도 확실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전시장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 거울에는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작품 활동을 한 자신이 거울을 봤을 때 비로소 예술가가 되었음을 인지하며 한 명의 예술가로서 전시장을 나갈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이예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세욱 메리는 언제나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해 나갈 예정이에요. 모두의 삶이 주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뜻을 모아 각자의 색을 빛내는 문화예술봉사단 메리가 되고 싶습니다.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8. 6. ~ 8. 27.

상상 아트 홀리데이

매주 토요일 2022년 상상언더 청소년 문화교육 '상상 아트 홀리데이'가 진행되었다. 춘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댄스·밴드·뮤지컬·공공미술·명상요가 놀이 교육 및 체험을 운영하였다. 마지막 날인 8월 27일에는 결과발표회도 이루어졌다.





8.6. / 8.13. / 8.20. 교육
8.27. 15:00~17:00 결과발표회
춘천 지하도상가 일대



8. 12. ~ 8. 28.

조운동네 공연배달

여름시즌 '조운동네 공연배달'이 진행되었다. 춘천 시민을 위한 인디밴드·밸리댄스·서커스·장구·탭댄스·아카펠라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놀이 체험, 마켓, 영화감상, 디제잉 파티, 상권 이벤트가 펼쳐졌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시즌이며 여름특집으로 운영되었다.





8.12.~8.13. 12:00~23:00 춘천시청광장
8.26.~8.28. 12:00~23:00 조운웰컴센터



8. 15.









《조운동네 좋은소식》3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3호를 발행하였다.



8. 20.



블루요선

여행페스타 '블루요선'은 요선동 권역 청년 상인·예술가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주체인 주민 동력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2022년 6월부터 주민 기획 소모임, 공동 브랜딩 개발, 지역 자원 활용 문화예술 사례가 담긴 전문가 멘토링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요선동 고유 자원인 음식, 예술, 공간의 역사성 등 주민이 직접 안내자로 참여하여 권역 일대 산책을 통해 요선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6.~8. 주민기획단 회의
8.20. 13:00~20:30 조운웰컴센터 및 요선동 일대

9. 3.



반짝! 놀이터



새명동 상권 축제 '반짝! 놀이터'가 진행되었다. 공연·놀이·새명동 먹거리 민족 등 문화예술을 연결고리로 새명동 음식 상권을 연계하였다. 새명동 먹거리 민족은 축제 현장에서 음식을 주문한 신청자 대상으로 현장 스텝이 직접 음식 주문 및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배달비는 무료이다. 이외 유아·초등학생 대상 놀이 체험과 마술·풍선 공연이 준비되었다.

11:00~17:00 춘천시청광장





9. 5. ~ 9. 13.

전시 '희로애락'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모먼트(김수림) 작가의 개인전 '희로애락'이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번이 첫 번째 전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시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모먼트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개인전을 하게 된 예명 모먼트, 본명 김수림입니다! 작년 4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 함께 올렸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저조했고 감히 크게 바라지도 못했죠. 그런데 6월에 조회 수가 엄청 늘면서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SNS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영향력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론 이용층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어린아이나 노년층 등 SNS를 잘 사용하지 않는 집단을 포함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제한받지 않는 전시를 구상하고 싶었어요.

이예은 작가의 말에서 순간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하셨는데, 그걸 느끼게 된 결정적인 경험이 있다면요? 예명 '모먼트'로는 언제부터 활동하셨는지.

모먼트 감정 기복과 연결하다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늘 인생이 좋을 수는 없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긍정적임'을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감정이 있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복이 생기는 게 당연한데 '감정 기복이 꼭 나쁜 걸까?'라는 생각을 하다 '하루에도 일교차가 있듯 자연스러운 거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속 좋은 일만 생기다 하나가 안 좋고 반대로 계속 안 좋다가 좋은 일 하나가 생기는 등 순간의 힘은 이전 시간이 기억 안 날 정도로 무의미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크다고 느꼈어요. 긍정과 부정 모두 상관없이 누군가의 순간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작년 10월부터 예명 '모먼트'로 활동하게 되







었습니다.

이예은 갤러리 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모먼트 친한 친구와 언니가 단체전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번화가라 사람들 발길이 닿기 쉽다는 점과 내부의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좋았어요. 임차비 없이 무료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덜기도 했구요.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장점이 크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예은 해당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담고 싶었던,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모먼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희로애락'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현 사회에서 감정은 억압해야 할 것으로 여겨져요. 울고 싶은데 울면 나약하다는 등의 얘기에도 쉽게 동조되죠.

일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듣는 쓴소리나 비난받는 상황 또한 최대한 회피하고 싶어 해요. 게다가 마음의 상처는 주로 '감정'에서 비롯되므로 무례한 일을 당해도 상처 받지 않고 똑같이 반격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안되고, 울고 싶지만 '이 정도로?'라는 생각에 주저해요.

저만이 다뤘던 '희로애락'을 통해 왜 사진 속 인물의 표정이 이러한 지와 글을 적음으로써 '마음껏 울고, 시원하게 화내고, 소리 내 울고, 정겹게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예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모먼트 개인전 해보고 싶다는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동력이 되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해보려 해요.

이번 전시가 끝나고 홍대 경의선 책거리에서 작가전과 시집 출간 및 북토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글쓰기를 포함해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기에 가요제도 나가보고 작사·작곡 공부와 앨범 유통까지 해보고 싶어요! 유명한 사람보다 감동을 주는 사람 되기가 삶의 목표입니다.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전시 '시선이 머물다'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이강신 작가의 개인전 '시선이 머물다'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많은 장르 중 유화를 전공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이강신 11년 전부터요. 암이란 병마가 찾아왔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굵고 짙은 명암에 매료되어 유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예은 작품을 감상하다 보니 눈에 띄게 불룩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덧칠의 특성상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의도하신 양감인 건가요?

이강신 덧칠의 특성도 있지만 그림 안에 알게 모르게 거즈에 흡수되는 유화물감의 모습을 살짝 넣어 놓았구요, 모래를 곱게 쳐낸 젤스톤을 이용하여 질감을 의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감을 상당히 많이 써야 하고, 또 마르는 데 시간도 많이 소요돼요.

이예은 갤러리 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이강신 상상언더그라운드에 입주해 계신 작가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예은 지하도상가에 숲 내음이 일렁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작품이 숲과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작가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숲인 걸까요?

이강신 네. 나무숲 속에서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했어요. 5년 동안 매일 산에 오르면서 변화되는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저의 시선은 늘 나무에 머물렀어요. 친구들은 제 그림에 외로움이 묻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밝음을 표현하려고 부단히 고민하며 작업했던 것 같아요.

이예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담고 싶었던,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이강신 나무의 생명력처럼 내 마음도 굳건해졌으면 해서 힘든 작업을 해왔어요. 많은 분이 제 그림을 보면서 힐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예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이강신 계속 그림을 그릴 거예요. 다시 새로운 전시도 준비하구요. 전시장을 찾은 어떤 분이 꽤나 한참 머무르시다가 밝은 얼굴로 가셨어요. 덕분에 저도 행복했죠. 붓을 들 힘이 남아 있는 한 쭉 작품 활동을 하고 싶어요.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세대를 뛰어넘는
요선동 여인들의 유쾌한 수다



이보화, 김동심 | 요선제면
서부대성로44번길 7-9, 033-254-7129

—

임재희 | J기타&우쿨렐레
소양고개길 60, 1층, 010-5762-7582

—

원지영 | 우주라이크커피
서부대성로48번길 13, 1층, 033-242-7666

임재희 안녕하세요? 저는 요선동에서 우쿨렐레와 기타 강습을 시작한 지 4년 차 됐어요.

김동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선제면을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께서 우리 가게를 70년 가까이 해오셨어요.

이보화 반가워요.

원지영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커피집 운영한 지 이제 석 달째인 새내기 요선동 사람입니다.

임재희 어떻게 국수를 70년 가까이 만드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보화 남편이 평양사람이고 머리가 아주 비상했어요.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가 싸게 들어오는데 품질도 좋았어요. 그래서 국수기계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스물다섯 살이에요. 다들 돈이 없으니 싸고 맛있는 국수가 잘 팔렸죠. 그렇게 시작한 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젠 난 힘들어서 실제 운영은 우리 딸이 해요.

김동심 엄마가 엄청 부지런하세요. 연세가 90이신데, 지금도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아직도 국수를 직접 반죽하세요. 말리고 이런 건 힘들어 못하셔도 가게에 꼭 나와보세요.

임재희 대단하시네요. 너무 정정해 보이셔서 사람들이 나이를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주변

에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저는 아직 동네분들을 잘 몰라서요.

이보화 젊어서부터 같이하던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다 아들이나 손주들이 하고, 또 많이 없어졌죠.

김동심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대폿집들이 많았어요. 평창이모네 같은 집이요. 전집에서 막걸리 팔고 그러잖아요. 여기로 대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데모하는 학생들. 술 한잔 걸치면 민중가요도 부르고 시끌시끌했어요. 그때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50, 60대가 되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임재희 추억을 찾아서 오는 거네요.

김동심 네. 그렇죠. 예전엔 여기서 살며 장사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이사를 나가 출퇴근해요. 멀리 이사 가신 분들이 가끔 오시면 놀라죠. 초등학교 때 엄마 심부름으로 10원, 20원 들고 칼국수 사러 왔는데 어떻게 여태 하시냐고 반가워하세요.

원지영 저희처럼 초보 상인들은 요선동에 이런 전통 있는 가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시작한 지 석 달 됐거든요. 오빠네가 하던 가게를 넘겨받아 하는데 사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내 사업을 시작해보니 직장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웃음) 회장님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동네가 발전할 방법에 대해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이보화 앞으로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발전해나가야지, 열심히 하고.

김동심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내려놓고. 장사가 왜 안 되지? 막 조바심 내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안 되는 날도 있고 잘되는 날도 있겠지 해야 합니다. 커피 사장님 같이 젊은 분들한테는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그저 버텨라! 버텨라지요.

임재희 저는 코로나 피해를 진짜 많이 봤어요. 오픈하자마자부터 3년 동안요. 처음에는 정말 어쩌지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공을 쌓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진짜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슬슬 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안 된다고 했을 레슨도 다 했어요.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회장님과 여러분 뵈니 너무 좋습니다.

이보화 이렇게 또 우리 상인들끼리 자유롭게 마음 놓고 서로 모이고,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원지영 한 분야를 꾸준히 해오신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세요. 또 그것을 따님이 이어서 하는 것도 멋지시고요.

임재희 그러니까 깊은 맛은 어르신들이 내주고 그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널리 알리고. 시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홍보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며 이어가는 거죠.

원지영 저희 카페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모임에서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러 많이들 오세요. 옛날처럼 술이 주가 되는 문화가 아니라 차 마시며 대화 나누는 분위기가 세대를 다 어우르는 것 같아요. 한 공간에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모두가 어울리면 좋잖아요.

임재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주차 공간이나 주변이 더 깨끗하면 정말 좋겠어요. 요선동이 입지가 참 좋거든요.

이보화 정비를 좀 해야 해요. 예전에 비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도록 만들어야지요.

김동심 요선동이 오래됐어요. 우리를 포함해 예전 시장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꺼리고… 또 여기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존 어르신들의 생각이 좀 불편하고 그렇죠.

임재희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어서 만남의 물꼬만 트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지영 저희 개업 날에도 떡을 돌리려 했는데 카페가 점심시간부터 바빠 계속 일하다 보니 금세 저녁이 되는 거예요. 떡은 다 돌리지도 못했는데 대부분 문을 닫고 깜깜해졌더라고요. 그때 동네에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알게 되니 든든해지네요.

임재희 서로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챙기고 살기도 바쁜 거예요. 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주차문제나 환경문제, 또 동네를 살릴 수 있는 문화행사 등을 만들어나가면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보화 나는 나이도 많고 나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해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게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들 해봐요.

원지영 잘 보살펴주세요. 우리들의 회장님! 임재희 존재만으로 힘이 됩니다.

인터뷰 및 글_ **조성미**(시민기자)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4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조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새명동



새명동의 역사 배경과 위상

새명동은 춘천 도심이 근대화된 이후 현재까지 변화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새명동은 명동과 함께 한국전쟁 후 춘천시청을 필두로 금융·의료·사회기관·여관·식당·카페·행정서비스 시설·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가장 번화한 지역이다. 여기에 조운동과 중앙로터리를 연계하여 춘천 전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까지 갖추어 명실상부 춘천 최고의 중심지역이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주거지와 아파트 단지가 다수 조성되어 춘천 부도심이 동서남북으로 생겨나고, 1998년 지하도상가가 개장하고 아파트 신축이 계속되며 도심 여러 곳에 부도심이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까지 설립되면서 새명동 상권은 더욱 위축되었다.

그러나 2002년 춘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겨울연가〉의 전례 없는 흥행과 2003년 68면 규모의 조운동 공용주차장 건립으로 어느 정도 현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어 새명동의 미래 청사진은 어둡지만 않다.

춘천 문화도시의 출발점이자 밑거름이 된 옛 소양극장(피카디리극장)

춘천에 1956년 춘천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소양극장을 이어 1958년부터 신도극장, 제일극장(1958), 중앙극장(1959) 등이 소양로와 중앙로에 차례로 들어섰다. 현대식 극장 형태로 가장 먼저 개관하여 조양동에 자리한 700석 규모의 소양극장은 다른 극장과 함께 1960~1970년대 춘천의 문화 형태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될 만큼 상징성이 컸다. 설과 추석, 어린이날,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극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렇게 춘천 문화의 가장 앞자리에 있던 소양극장이 지금의 '문화도시 춘천'을 일궈내는 밑거름이 되었고 명동으로 이어지는 문화 교두보 역할을 하였

다. 이후 1967년 운교동(현 조운동)에 세워진 육림극장과 쌍두마차로 춘천을 대표하는 최고의 극장이었다.

그러나 소양극장은 1990년대 이후 부도심이 커지자 원도심 중심 상권이었던 명동, 요선동 중앙시장과 함께 시나브로 쇠퇴하였고, 이에 앞서 1987년 피카디리극장으로 이름을 바꾸며 재기를 노렸지만 대형 영화 전용관이 인근에 들어서며 2007년, 50년 역사를 뒤로한 채 문을 닫았다.

강원도 경제와 상권의 상징이었던 옛 강원은행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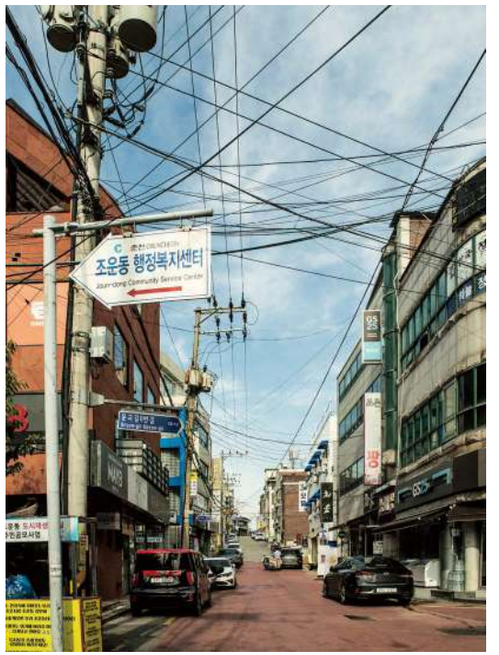
강원은행은 지역민에게 금융정책을 총괄했던 지역 대표 은행으로 본점이 조양동에 있었다. 1970년 강원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발한 강원은행은 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9년 조흥은행으로 흡수되어 문을 닫기까지 29년간 강원도 경제와 상권의 자존심으로 자리했다. 개점할 당시 자기자본금은 3억 원이었으며 1972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외국환 업무 취급을 비롯한 각종 은행 업무를 총망라해 운영하였다(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 춘천 지역민은 물론 강원도 전역에서 통장을 하나쯤 개설하여 이용하던 강원도 대표 은행이었다. 1993년 12월엔 수신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섰고, 1996년 말엔 총자산이 3조 7,000억 원에 달하여 강원도 지역 최고 은행으로 손색이 없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1999년 조흥은행에 흡수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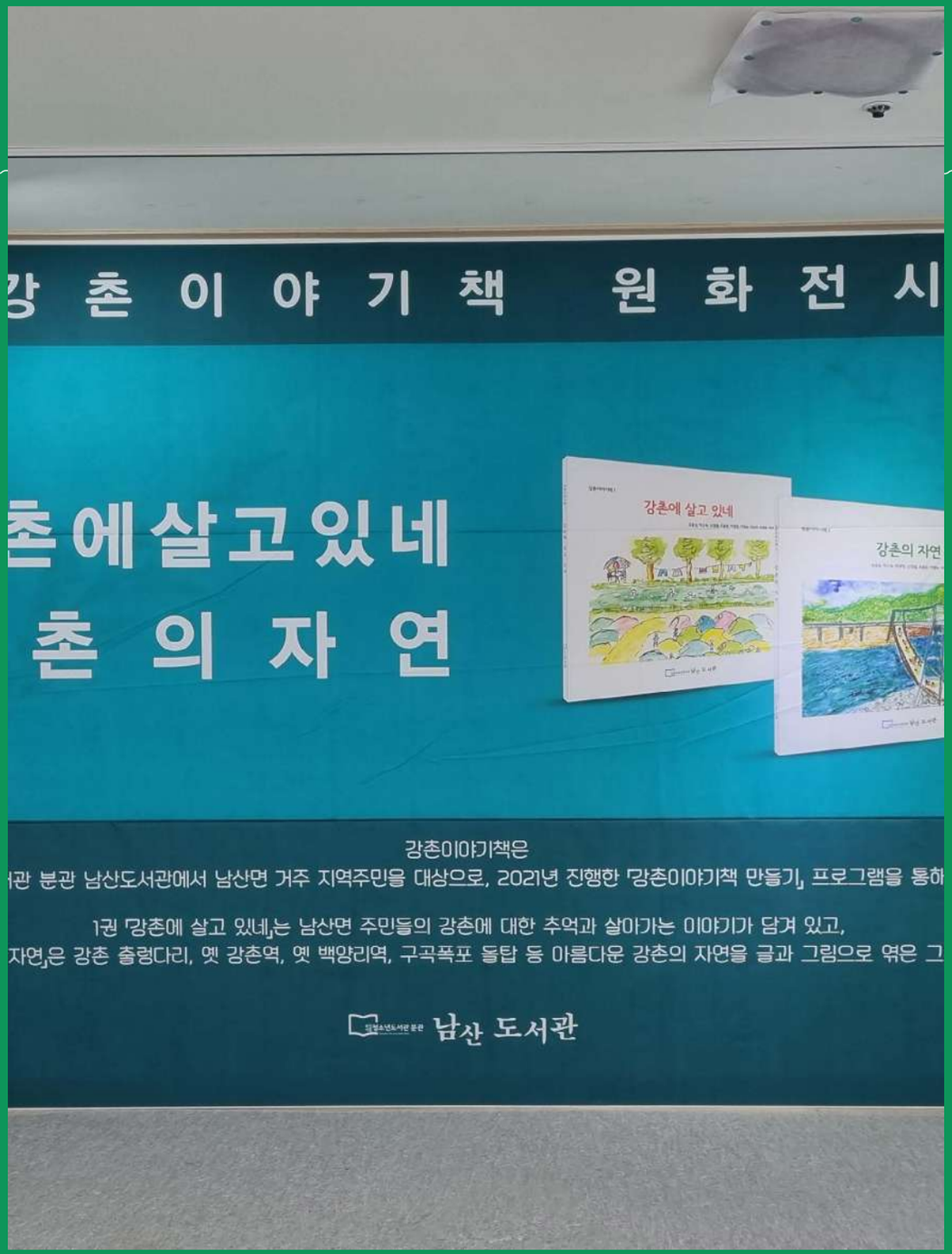
새명동의 미래

새명동은 춘천 원도심의 중심축이며 춘천시청을 중심으로 금융·의료·사회기관·여관·식당·카페·행정서비스 시설·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번화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재 조운동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요선동, 지하도상가, 새명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매력적인 복합문화 공간 조성사업: 상상어울림 조성사업, 시청광장 문화활성화 사업',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중앙로 상상 언더그라운드 조성사업, 지하광장 상상공원 조성사업, 중앙로 상상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으며 시너지효과를 낼 때 조운동 속 새명동의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글_ **허준구**(춘천학연구소장)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4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part 4

10월에서 12월

* 전시 '제10회 춘천불교미술인협회전'
* 10월 월례회의
* 《조운동네 좋은소식》4호 발행
* 전시 '높은 곳에서 아름다움으로 노닐다'
* 조운동네 공연배달
* 전시 '시백 우유팩 그림전'
* 갤러리 상상언더 대관 모집
* 전시 '제8회 예림회전'
* 11월 월례회의
* 상상마켓 2022
* 전시 '사인전(思仁展)'
* 《조운동네 좋은소식》5호 발행
* 정기 총회
* 공실 모집

10. 1. ~ 10. 15.

전시
‘제10회 춘천불교미술인협회전’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춘천불교미술인협회의 단체전 ‘제10회 춘천불교미술인협회전’이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춘천불교미술인협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모임인가요? 회원수도 궁금하구요.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도 있을까요?

신철균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미술인들의 모임이며, 2014년에 창립전을 열었고 회원 수는 25명입니다.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예은 매해 전시를 진행해오신 건가요? 항상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다면요?

신철균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고 특별한 기획전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원주 흥법사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등 폐사지, 특히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의 귀향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월정사의 후원으로 월정사성보박물관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예은 갤러리 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신철균 미술인들의 다양한 전시를 통해 갤러리 상상언더의 존재를 알았고, 신청하게 됐어요.

이예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담고 싶었던,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신철균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평소에 작업하고 있는 주제를 다양하게, 전시 공간에 맞춰 작업했습니다. 수양하는 자세로 만든 작품을 전시하며 시민들에게 불교미술인 단체를 알리고자 했어요.

이예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신철균 예술이 종교의 틀에 구속되기보다는 참선하고 수양하는 자세로 함께한 작가들의 독창적이고 진솔한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10. 12.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10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운동네 공연배달' 겨울시즌, 《조운동네 좋은소식》, 지하도상가 플리마켓 추진, 사업권역 현황 조사, 조운웰컴센터 운영관리 주체 변경 승인, 주민협의체 운영 규정 개정안 준비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10. 15.



《조운동네 좋은소식》4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4호를 발행하였다.







10. 17. ~ 10. 30.

전시
'높은 곳에서 아름다움으로 노닐다'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소양상미회의 창립전
'높은 곳에서 아름다움으로 노닐다'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소양상미회 창립전'이에요. 소양상미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모임인가요? 이름의 의미와 회원 수도 궁금하고요.

최정윤 언제부터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회원들 각자의 사연들로 모여 붓을 들기 시작했어요. 회원 수는 6~8명 정도입니다. 소양은 우리 춘천을 의미하고, 상미(尙美)는 '아름다움을 높이 알리다, 드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예은 많은 장르 중 민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민화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최정윤 민화는 집 안의 장식이나 행운을 비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전문 화가가 아닌 일반 서민들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화려한 기교보





다는 소박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볼수록, 그릴수록 매력적입니다.

이예은 갤러리 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최정윤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앞선 여러 작가님의 전시회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이예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담고 싶었던,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최정윤 "나도 그린다. 당신도 그릴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지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취미 활동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또 다른 '나'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껴요. 이 느낌과 변화를 많은 이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예은 작가님 혹은 소양상미회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최정윤 이번 창립전을 시작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회원이 늘어나 많은 분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전시
'시백 우유팩 그림전(FINE DAY)'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안종중 작가의 개인전 '시백 우유팩 그림전'이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우유팩 그림전'. 우유팩 작품을 그리기 시작한 시점과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종중 모티브를 가지게 된 건 1999년도쯤이에요. 우유팩을 들고 있다가 멀거니 뜯어봤어요. 아주 우연찮게요. 속이 하얘 접힌 자국이 삼악산 모양처럼 보이더군요. 특수한 재질에 흥미를 느꼈죠. 재미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후 2001년 전람회에 4점을 처음 출품했었어요.

이예은 서예, 문인화, 전각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토록 여러 장르의 작업을 꾸준히 해오신 작가님의 원동력과 신념이 궁금해요!

안종중 원래 전공은 서양화였어요. 그런데 미대 교양과목에 서예가 있습니다. 그 매력에 빠지게 됐어요. 당시 교수님이 하시던 인사동에 있는 서예교실도 다녔어요. 제 전공보다 서예를 더 많이 하게 됐죠. 서예하면서 느낀 점은 서예만 하면 고루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기운을 돋아내어 그걸 방지해주는 역할로 문인화, 사군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반대로 문인화를 하는 사람은 속기를 없애기 위해 서예를 해야 하고요. 둘은 상호보완 관계예요. 그리고 작업 마지막 과정으로는 도장 찍기가 있죠. 그게 바로 전각이에요.

이예은 갤러리 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나요?

안종중 지하도상가 작업실을 사용하는 작가들과 아는 사이기도 하고, 여기서 진행한 지인들의 전시회도 몇 번 왔습니다.

이예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담고 싶었던,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안종중 우리가 평시 갖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시야와 사고를 전하고 싶었어요. 사람이서 있기만 할까요? 일종의 발상 비틀기예요. 설명조의 그림보다는 보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예은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안종중 중국 소동파의 유명한 글 '전적벽부, 후적벽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 심포니 넘버1~9도 있고요. 그에 영감을 얻은 동양의 글과 서양의 그림 작품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초서와 추상(화)의 만남. 지금 3분의 1쯤 준비해뒀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시로는 사군자, 매란국죽을 걸고 싶어요.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11. 7.

갤러리 상상언더 대관 모집

2023년도 갤러리 상상언더 대관 모집을 시작하였다. 대관비는 무료이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11. 11. ~ 12. 2.

11.11. 19:00~21:00
033다이닝파티
11.19. 11:00~16:00
조운웰컴 키즈파티
11.26. 16:00~21:00
춘천으로 겨울행
12.2. 19:30~21:00
우리들의 조운동네

조운동네 공연배달

겨울시즌 '조운동네 공연배달'이 진행되었다. 한 달 일찍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구성하였고, '033 다이닝 파티', '조운웰컴 키즈파티', '춘천으로 겨울행', '우리들의 조운동네'라는 네 가지 배달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권역 문화적 자원을 연결하였다. 칵테일 만들기·재즈 공연·MZ세대 상권 토크·영화·마술 공연·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사진 산책·네트워킹 파티·아카펠라 공연 등을 준비하였다.







11. 16. ~ 11. 30.

전시 ‘제8회 예림회전’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예림회의 단체전
‘2022 수묵과 함께 떠나는 춘천 풍경 여행’이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제8회 예림회전이에요. 부회장님은 이번이 몇 번째 참여이신가요? 예림회에 언제,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나요?

이승호 제5회 예림회전부터 참여하기 시작해 네 번째예요. 2018년 교직에서 퇴직하고, 2019년 2월 친구의 소개로 예림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이예은 원래 그림을 그리셨던 건지, 아니라면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많은 장르 중 한국화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승호 평소에 그림을 좋아하긴 했지만 직접 그림을 그리기에는 여러 여건상 어려웠어요. 퇴직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전공은 수학인데, 주위의 많은 분이 전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웃어요.(웃음)
처음에는 수채화를 배우려고 했는데, 한국화를 하는 친구가 같이 활동하자고 권유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수묵화에 푹 빠져서 수채화 배우려던 것은 잊어버렸어요.(웃음)

이예은 지금껏 참여해온 전시나 그려온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이승호 음, 한국화를 배우기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 ‘소양호의 아침’이라는 작품을 전시하였는데, 안개 낀 고요한 소양호에 철새들이 노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었어요. 예림회 전시회 홍보용으로 신문에도 기사화 되기도 해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예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담고 싶었던,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이승호 결성 초기에는 예림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2년 이상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를 탈피하고자 조직을 재정비하고 회원 모집에도 힘을 많이 썼어요. 다행히 춘천문화재단의 지원금도 받게 되어 회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고요.
이번 전시회 주제는 ‘수묵과 함께 떠나는 춘천 풍경여행’인데 춘천의 명소들을 담백하지만 강렬한 수묵으로 표현하고자 했어요. 예림회가 신생 동호회이지만, 이제는 중견 미술동호회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이예은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이승호 한국화를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배워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화폭에 담고 싶어요. 3년 뒤 칠순 잔치는 개인 전시회와 겸해서 같이 하자고 친구와 약속했습니다.(웃음)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11. 30.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11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운동네 공연배달' 겨울시즌, 《조운동네 좋은소식》, '상상마켓 2022', 정기 총회 준비, 조운웰컴센터 대관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12. 3. ~ 12. 4.





상상마켓 2022

춘천 지하도상가 플리마켓 '상상마켓 2022'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프리마켓, 공연, 만들기 체험, 스탬프 투어, 시민 노래방, 경품 추첨을 준비했고, 해당 마켓은 춘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참여하였다. 다만 영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무인마켓으로 꾸려졌다. 약 30개 점포가 참여했으며 여러 명의 스태프가 배치되어 계좌이체, 제로페이를 통한 대리 결제를 운영하였다.



12. 1. ~ 12. 15.

전시 | ‘사인전(思仁展)’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김대영, 신승복 작가의 2인전 ‘사인전(思仁展)’이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그림을 시작하신 건 언제인가요? 다양한 장르 중 산수화를 선택했던 계기가 있나요?

신승복 고등학교 졸업 후 화실을 다녔어요. 필법 등을 익히기 시작해 서예, 산수화 등 여러가지 배웠죠. 잘 맞는다고 느꼈고, 대학에 들어가 한국화를 전공했어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29번의 개인전을 했구요. 평생 산수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이예은 원래 산수화가 색채감이 크지 않긴 하지만, 작가님 작품은 흑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더라구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신승복 저희는 보통 흑백이 아니라 묵필이라고 표현하는데, 한창 배우던 시절 양화를 그려봤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후 모든 그림은 색채 없이 먹으로만 작업해왔어요.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한 장 얻는 것이 욕심이자 목표인데, 아직이라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예은 지금껏 참여해온 전시나 그려온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신승복 아무래도 첫 전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90년대 초 선갤러리에서 진행했었어요. 양복을 맞추고 머리를 밀고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했죠. ‘산수화가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예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담고 싶었던,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신승복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많은 분이 산수화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여태껏 홍보도 잘 못 하고 혼자 조용히 했었는데, 접근성이 좋아 일반 시민분들도 오시고 만족스러워요. 결국 전시란 누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에 사람이 많을수록 재밌어요.

이예은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

신승복 일단은 계속 주위 풍경을 산수화로 담을 거고, 대작 위주로 기억될 만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강원도가 산수화 하는 화가들한텐 훌륭한 곳이죠. 산수화가로서 영광이에요.

조운동네의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12. 15.









《조운동네 좋은소식》5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5호를 발행하였다.

12. 15.







정기 총회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2022년 사업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운영위원 선출, 운영규정 개정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12. 22. ~ 23. 1. 15.

공실 모집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잔여 공실에 대한 입주단체(인)를 모집하였다.

‘춘천스럽다’에 어울리는 동네, 옥천의 재생을 이야기하다



올훼의 땅 **우종성**
010-9921-3267, 춘천시 옥천길 25

—

책방마실 **홍서윤**
010-9948-3205, 춘천시 옥천길 27 2층

—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장 **박향순**
033)250-4939,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박향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옥천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

우종성 네, 저는 〈올훼의 땅〉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고, 그전에 춘천에서 오래 카페를 경영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카페이면서 문화공간입니다.

홍서윤 저는 6년 전인 2016년 이 길 건너에서 처음 책방을 시작했고, 그 후 효자동에서 책방을 운영하다가 다시 이곳으로 온 지 넉 달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구역이 되었다는 말은 후에 들었습니다.

박향순 도시재생이 권역마다 사업이 다른데, 저희는 중심시가지형으로 문화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종성 춘천의 도시재생은 근화소양, 교동소양, 조운소양 그리고 약사명동까지 그 권역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큰 그림이고, 그 요지에 옥천동이 있죠. 저는 여기를 안 거치면 좋은 모양이 끊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향순 옥천동이 역사나 문화 쪽으로는 되게 오래되었고, 좋은 점이 많죠.

우종성 이쪽이 오피스 상권이라 주말에는 보통 평일 장사보다는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저희는 이제 12년 차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주말을 이용해 오는 분도 많아요. 여기가 주

말에 주차하기가 괜찮아서 이게 또 장점입니다.

박향순 네, 접근성도 중요하지요.

홍서윤 주말에는 시청 주차장도 무료고, 길가에도 차를 세울 수 있는 데다가 관공서가 쉬는 날이니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별로 없어요. 이 고즈넉한 분위기가 저한테도 맞고 책방을 찾아오는 분들도 좋아하세요.

우종성 시내 중간에는 옥천동 같은 이런 공간이 없죠. 저희 카페도 원래 일반인들 위주의 영업은 아니었는데 시청 주변에 있다 보니 시청 직원과 민원 보러 오는 분들이 찾고 또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평일에도 조금 바빠진 편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 트렌드도 맞추려고 하고요.

박향순 네, 저도 몇 번 들렀는데 손님이 많아서 못 먹고 갔습니다.(웃음)

우종성 하하,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웃음)

박향순 이 옥천지역이 북적북적한 상가는 없지만 이렇게 자기만의 색깔을 담고 있는 곳이 군데군데 있다는 게 매력적이네요.

홍서윤 새롭고 특색 있는 것들을 찾아 춘천으로 관광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기 에스프레소 전문점이 되게 유명하다면서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주변 산책하고, 우리 책방에 와서 책 구경하고.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도 많으세요. 주말에도 조금 더 잘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종성 저희 각자가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낼 테니 믿고 서포트해 주세요.(웃음)

박향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현장지원센터의 일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요.

홍서윤 저는 우리 지역에 와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함께하는 게 저희에게도 좋고요.

박향순 좋은 생각이네요. 앞으로도 옥천동의 빛깔을 가진 도시재생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및 글_ **조성미**(시민기자)
소식지 《조운동네 좋은소식》 5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행정·언론·문화·금융 1번지인 춘천 100년을 느끼는 곳, 옥천동

옥천동(玉泉洞)은 맑은 샘물이 그곳에 여러 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샘물(일명 샘통)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옥천동은 일제강점기에는 본정통(本町通, 중앙로)으로 일본인이 밀집해 장사하며 거주하던 공간이었고, 춘천초등학교가 38년이란 세월을 터 잡았으며, 춘천경찰서와 춘천우편국(春川郵便局)이 자리하였던 곳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옥천동에는 춘천시청을 비롯하여 강원일보사, 한국은행 강원본부, 구(舊) 춘천문화원, 문화 커뮤니티 공간 올훼의 땅, 공유책방 본책, 오랜 맛집과 게스트하우스, 작은책방 등이 자리해 여전히 행정·언론·문화·금융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춘천 120년 역사가 깃든 춘천시청 자리

옥천동을 대표하는 장소를 꼽는다면 단연 현재 춘천시청 자리일 것이다. 이곳에는 근현대 120년간 춘천이 변화해 온 모습이 상징처럼 담겨 있기 때문이다. 춘천은 강원도에서 가장 이른 1949년에 시로 승격되었으며, 이는 전국으로는 열두 번째였다. 춘천은 1896년 23부제가 13도 도제로 개정되면서 관찰부를 도청으로 개편하였고, 이로부터 명실상부한 강원도 수부 도시가 되었다.

춘천시청이 지금 자리에 들어선 해는 1957년이다. 1900년 공립 춘천보통학교(현 춘천초등학교)는 강원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1896년에 개교하였고 1900년 현 시청 자리에 들어섰다. 이후 춘천보통학교는 1938년에 지금 자리로 이전하였고, 시청 자리는 친일 도지사 이범익의 고향이 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양대로 불리며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 이후에는 이곳에서 좌우로 갈라진 이념 대결이 펼쳐져 민족 분단이 가져온 슬픈 역사의 광장이기도 했지만 주민에게는 휴식 공간으로 기억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후 춘천은 멀쩡한 건물 하나 없이 초토화되어 이후 재건사업이 진행되었다.





1957년 지금 자리에 춘천시청이 들어서면서 옥천동 춘천시청 시대를 열었다. 1959년에 강원도지사 공관(관사)이 시청 옆에 들어서고 1999년 3월 18일에 춘천문화원이 이 건물에 입주하여 춘천문화를 선도하는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고, 2004년 9월 4일 국가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 107호)로 지정되며 춘천문화원의 상징성과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다. 2010년 2월 춘천문화원이 퇴계동으로 이전하면서 춘천시청 부속 건물로 활용되다가 2020년 6월 리모델링 후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

춘천미술관에서 시청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구춘천문화원 건물을 길 건너 마주하고 있는 카페와 책방이 있다. 카페는 예전에 '바라'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기도 했던 문화 커뮤니티 공간인 카페 '올훼의 땅'이다. 이곳은 레코드판을 전문 DJ가 틀어주고 그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춘천에 몇 안 되는 커뮤니티 문화공간이면서 작은 연주회와 공연이 수시로 열리며 춘천에 내로라하는 문화예술가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이다.

'올훼의 땅' 바로 옆 건물에 좀 특이한 책방이 있다. 2021년 문을 연 공유책방 '본책'이다. 이 책방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회원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문학 강좌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다양한 구성원이 지혜를 모은 책방으로 방 세 개를 주제별로 큐레이팅하였고, 지역 작가와 작품을 발굴해 가치를 입히는 일을 하고 있다.

옥천동은 춘천의 행정·언론·교육·문화·금융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행정 중심 기관인 시청이 끌어들인 자기장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간마다 축적된 또 다른 자기장이 작용하고 있음도 느낄 수 있다. 그 느낌을 읽어내는 힘이 지역에 대한 이해이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랑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기가 발붙이고 사는 시공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역학이 가지는 힘이라 생각한다.

글_ **허준구**(춘천학연구소장)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5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이야기

조운동네 좋은소식 2022

발행일 2023년 1월 30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유명화
사진 이보영(스튜디오 록)
디자인 쿠담
제작 여름 출판사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5

조운소양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동자료집 2022

https://blog.naver.com/joundongne
https://www.instargram.com/joundongne

@joundongne

국토교통부 | 춘천시 | 조운소양 도시재생뉴딜사업